

KERI Brief

기업가정신 지수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 기업가정신 환경평가

박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원
(heather@keri.org)

최 근 발표된 2017 국제 기업가정신 지수(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점수는 '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세계 랭킹 역시 OECD 34개국 기준으로 중하위권인 23위로 작년보다 1단계 하락했다. 이는 창조경제의 기초아래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 매년 2조 원이 넘는 투자와 각종 정책적 지원이 쏟아지는데 비해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GEI를 구성하는 3개의 큰 기둥(태도, 능력, 열망)과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 14개 항목의 분석 결과 한국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하는 제도부문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답보상태의 한국과는 달리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들에서는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통해 경제병목을 해결하고자 하며 기업가정신 순위 또한 각각 12계단, 29계단 상승했다. 선진경제인 일본의 경우 기업가정신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잘 갖추었고 작년까지 한국에 비해 뒤쳐졌으나 올해 한국보다 3계단 앞선 상위 25위에 랭크되었으며, 아시아 1위에 랭크되는 대만의 경우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기초가 강하다.

종합해보면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현재의 양적추구와 단기적 성과에 편중된 창업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가정신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비제도적으로는 사회전반에 강한 반기업정서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 및 태도 개선이 시급하다.

I. 검토배경

□ 기업가정신은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과소평가되어 왔으나 GEM, GEI와 같은 기업가정신 지수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현상에 변화가 생김¹⁾

- 성장에 관한 실증 연구들에서는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이 함께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였으나,²⁾ 기업가정신은 측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요인들 가운데 포함되지 못함

○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변수들은 대부분 광범위한 국가 테이블에 적용이 가능한 기존의 2차 자료 (Secondary sources)를 사용하여 측정

○ 그러나 기업가정신은 기업가정신 활동이라고 대변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비율' 외에 국가의 기업가정신 측정이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자료가 없었음

-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의 등장과 함께 각국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정량적,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성장과 연계한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PK-YP-Autio, 2005; Carree&Thurik, 2005; Acs, 2006; 이민규-이운준, 2013; 황인학, 2015)

□ 기업가정신이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으로 인정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

- 막스플랑크연구소의 1인당 국민소득-기업가정신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2만을 넘어, 3~4만 달러로 오르기 위해서는 생산요소, 노동, 자본, 토지 등의 기본적 투입요소의 확대를 넘어 추가적으로 기업가정신이 필요

- 세계 주요국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신성장동력을 위한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기업가정신 활성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적극 추진

○ '12년부터 기업가정신 지수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8년간의 미국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³⁾

○ EU국가들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타격에 대한 회복 가운데, 기업가정신을 통해 유럽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자 "The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을 수립하고 기업가정신 교육, 행정 규제 철폐, 기업가정신 문화의 재점화 등을 추진⁴⁾

□ 최근 발표된 2017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순위는 OECD 국가 기준 23위로 작년보다 1단계 하락했으며, 기업가정신 점수⁵⁾도 퇴보하고 있음

-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가 발표한 2017 세계 기업가정신 지수(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에 따르면, 한국 기업가정신은 '15년에 대비 1단계 상승하여 '16~'17년 27위이나, OECD 34개국 중에서는 중하위권인 23위로 작년보다 1단계 하락

1) Van Stel, A., Carree, M., & Thurik, R. (2005).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Activity on National Economic Growth.",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311-321

2) Bleaney, M. & Nishiyama,(2002). "Explaining Growth: A Contest Between Models.", *Journal of Economic Growth* 7: 43.

3) The White House, "President Obama's Top Ten Actions to Accelerate American Entrepreneurship, 2016.11.30

4) European Commission, *The Entrepreneurship 2020 Action Plan*, 2013.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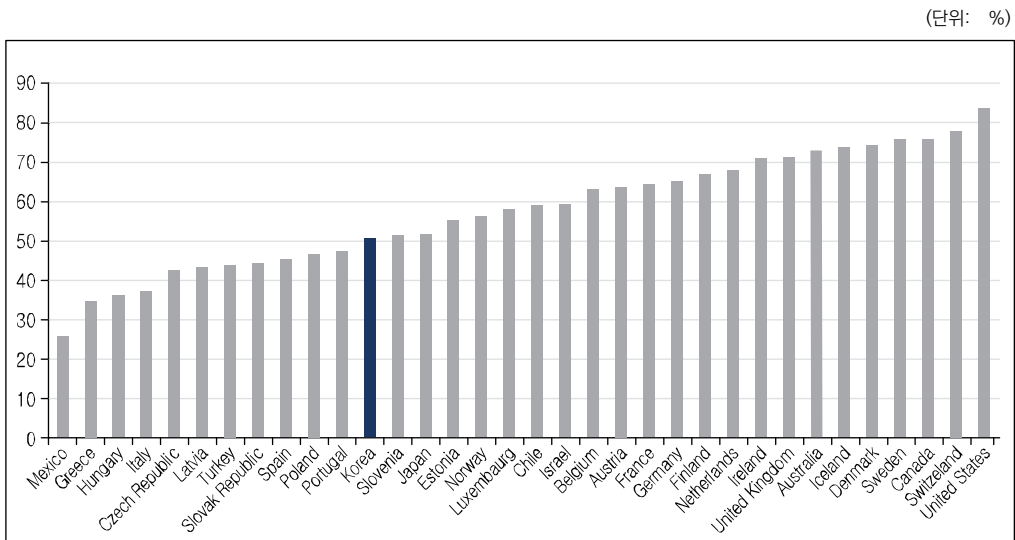
5) GEI 점수는 연도별로 산정기준이 다르며 매년 추정방식을 개선하고 있음

〈표 1〉 세계 기업가정신 순위 2015~2017(전년도 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순위	국가	점수
1	미국	85	1	미국	86.2	1	미국	83.4
2	캐나다	81.5	2	캐나다	79.5	2	스위스	78
3	호주	77.6	3	호주	78	3	캐나다	75.6
4	영국	72.7	4	덴마크	76	4	스웨덴	75.5
5	스웨덴	77.1	5	스웨덴	75.9	5	덴마크	74.1
6	덴마크	71.4	6	대만	69.7	6	아이슬란드	73.5
7	아이슬란드	70.4	7	아이슬란드	68.9	7	호주	72.5
8	대만	39.1	8	스위스	67.8	8	영국	71.3
9	스위스	98.6	9	영국	67.7	9	아일랜드	71
10	싱가포르	68.1	10	프랑스	66.4	10	네덜란드	67.8
11	독일	67.4
...	14	독일	64.6	12	독일	64.9
28	한국	54.1	27	한국	53.4	25	일본	51.7
33	일본	49.5	30	일본	50.6	27	한국	50.5
61	중국	36.4	60	중국	34.9	48	중국	36.3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5~2017

〈그림 1〉 2017 기업가정신 지수(OECD 34개 국가)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7 참고하여 정리

- 이는 창조경제의 기초아래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 매년 2조 원이 넘는 투자와 각종 정책적 지원이 쏟아지는데 비해 바람직한 결과라고 보기 어려움
- 특히, 이번 2017 기업가정신 지수는 평가항목의 일부를 새롭게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점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답보상태의 한국과는 달리, 지난해에 비해 기업가정신 지수가 눈에 띄게 개선된 국가들이 있음

- 기업가정신 지수가 크게 개선된 국가는 인도(29계단 상승), 중국(12계단 상승), 핀란드(7계단 상승), 스위스(6계단 상승) 등이 있으며,
- 근접한 경쟁국인 일본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15년 한국보다 5계단 낮았고, '16년에는 3계단 낮았으나, 2017년에는 한국보다 2계단 높은 25위에 랭킹

▣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개선된 국가들 중 한국과 같은 Asia-Pacific 지역그룹에 묶인 국가들의 변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한국이 속한 지역적 그룹인 Asia-Pacific 국가 그룹에서 기업가정신 지수가 개선된 인도(29계단 상승), 중국(12계단 상승), 일본(5계단 상승)의 기업가정신 지수 변동의 구체적 요인을 분석하고, 전체 16위(60.7점)이자 아시아 1위인 상위에 랭크된 대만의 기업가정신 지수를 분석하여 한국과 비교 및 시사점 도출

II. 2017 한국의 기업가정신지수(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1. 2017 기업가정신 지수

□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에서는 매년 11월 세계 130여국의 기업가정신 지수와 순위를 조사 발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평가항목의 제도적 요소들에 변화를 주어 새롭게 구성

- GEDI에서는 매년 11월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에 맞춰 글로벌 기업가정신 네트워크(GEN)와 함께 기업가정신 지수를 발표
- GEI는 기회인식, 창업스킬, 위험 용인 등의 개별 설문 데이터에 도시화, 교육수준, 경제 자유도 등의 제도적 변수를 접목하여 총 14개 항목을 구성해 각

국의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측정

- 2017 기업가정신 지수는 137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표 2>과 같이 기존의 분석항목에 새로운 변수(굵은 글씨)를 추가하여 평가

○ 14개의 평가항목은 각각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개별적 설문항목과 제도/환경적 항목⁶⁾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7 기업가정신 지수에서는 제도/환경적 항목의 변화가 있음

6) GEDI의 제도/환경적 평가항목은 부패인식지수(Transparency International), 고등교육 등록자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UNESCO), 인프라, 규제, 과학기술기관평가, 과학기술인력, 사업성숙도, 기술흡수, 기술사업화, 직원훈련, 시장지배력, 벤처캐피탈(World Economic Forum), 도시화(UN), 경제자유도, 재산권, 노동자유(The Heritage Foundation), 조세수준, 정부효율성(World Bank), 경제복잡성(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국가위험도(OECD), 자본시장성숙도(Venture Capital & Private Equity Country Attractiveness Index)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2016년 1월 31일 데이터 기준)

<표 2> 2017 기업가정신 지수 평가항목

하위 지수	14개 항목	개별 설문 항목(Individual-level)	제도 항목(Institutional-level)
태도	기회 인식	시장의 규모를 고려해 거주하는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인식	경제자유도 + 개인재산권보호
	신사업 역량	적절한 신사업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비율	고등교육(대학이상) + 교육의 질
	위험 용인	창업 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에 대한 비율	국가 위험도
	인적망 형성	2년 내에 창업한 사업가를 아는 지에 대한 비율	도시화 + 운수송 인프라
능력	문화적 지원	기업가에 대한 국민의 시각, 직업으로써의 선호도	국가의 부정부패 수준
	기획적 신사업	생계형 창업이 아닌 기획적 창업의 비율	조세수준 + 정부 서비스 효율성
	기술 흡수	ICT 산업영역의 기업 비율	EF의 기술흡수 자료W
	인적 자본	기업가의 교육수준	직원훈련 + 노동자유도
	경쟁	같은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자의 수가 적은 창업 사업 비율	시장지배력 + 독점금지규제의 효과성
열망	제품 혁신	국가의 신제품 생산 역량 및 기존 제품 복제 능력	기술사업화
	공정 혁신	5년 이하의 기술을 가지는 사업 비율	GDP대비 연구개발비 + 과학기술기관의 수준 + 과학기술인력 가용성
	고도성장	향후 5년 안에 50% 이상의 성장을 계획하는 기업의 비율	사업성숙도 +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 가능성
	국제화	수출능력	상품의 복잡성
	모험 자본	비공식 채널을 통한 투자규모 및 비율	자본시장 성숙도(주식시장 규모 및 유동성, IPO수준, M&A, 부채 & 신용시장 활동)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7

2. 2017 기업가정신 지수 한국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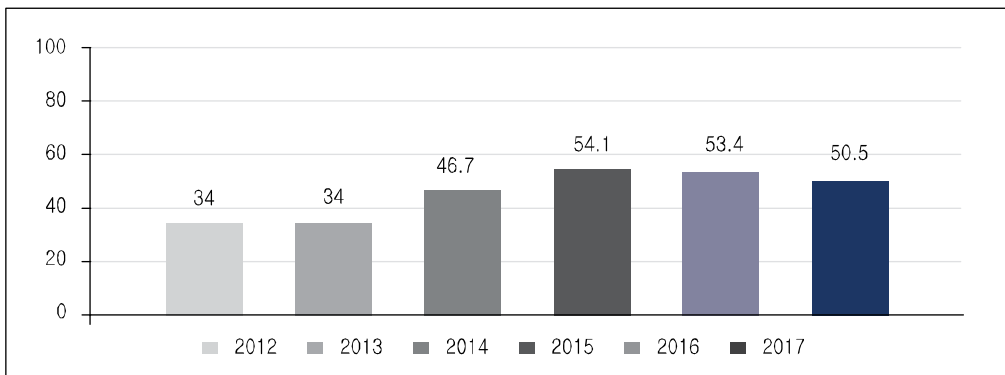
□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가 매년 11월 발표하는 기업가정신지수의 2017년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결과 분석

- '15년까지의 조사결과와 달리, '16~'17년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점수는 <그림 2>과 같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 특히, 기업가정신을 이루는 3개의 큰 기둥(태도, 능력, 열망) 가운데 태도(Attitude)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남

- '17년 한국 GEI 14개 세부항목 결과는 <표 3>과 같이 점수가 낮은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16 ~ '17년 GEI의 점수변화는 <표 4>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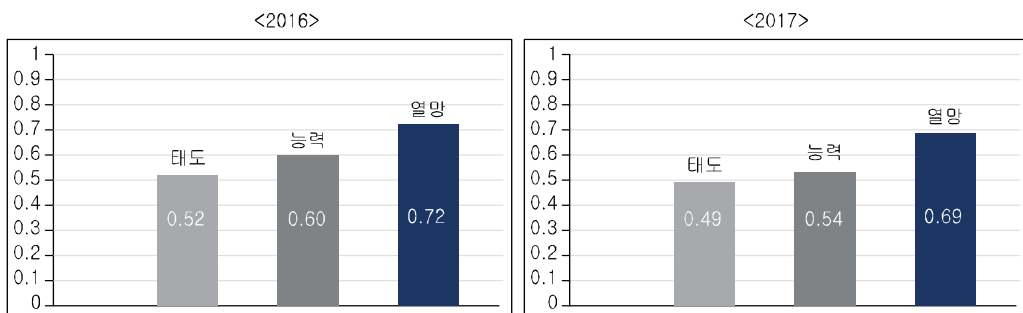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점수 추이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2-2017 참고하여 정리

<그림 3>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태도, 능력, 열망 평균

(단위: %)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6, 2017 참고하여 정리

〈표 3〉 2017 GEI 14개 세부항목 결과

14개 항목	점수
경쟁	0.25
기회인식	0.29
문화적지원	0.33
고도성장	0.38
국제화	0.42
신사업역량	0.46
인적자본	0.55
기회적 신사업	0.56
인적망 형성	0.61
위험 용인	0.76
모험자본	0.77
기술흡수	0.78
제품혁신	0.91
공정혁신	0.95

주: 점수가 낮은 순으로 배열

〈표 4〉 2016-2017 GEI 14개 세부항목 변화폭

14개 항목	변화폭	구분
인적자본	0.26	↓ 감소
고도성장	0.22	↓ 감소
위험용인	0.18	↑ 증가
신사업 역량	0.14	↓ 감소
문화적지원	0.12	↓ 감소
인적망 형성	0.09	↓ 감소
제품혁신	0.06	↑ 증가
공정혁신	0.06	↑ 증가
국제화	0.05	↓ 감소
기회인식	0.03	↑ 증가
모험자본	0.02	↓ 감소
경쟁	0.02	↑ 증가
기회적신사업	0.01	↑ 증가
기술흡수	0	동일

주: 변화폭이 높은 순으로 나열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6, 2017 참고하여 정리

- 3개의 기동 중 낮은 순(태도, 능력, 열망)과 기동을 구성하는 14개의 항목을 낮은 순서('경쟁' ~ '공정혁신')대로 설명 및 분석

① 태도(Attitude)

- 태도 기동은 한국이 가장 취약한 항목으로 기업가에 대한 인식, 창업 및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인식 등 사회의 기업/기업가정신에 대한 전반적 느낌을 말하며, '기회인식', '문화적 지원', '위험용인', '신사업역량', '인적망 형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됨⁷⁾

- 이는 한국이 OECD 34개국 중 9위⁸⁾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장벽이 높으며, 기업가정신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OECD 국가 중 30위⁹⁾로 낮은 것에서 태도 기동이 낮은 이유를 알 수 있음

- 태도 항목 중 한국이 특히 낮게 나온 항목은 '기회인식'과 '문화적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4개 항목 중 각각 2, 3번째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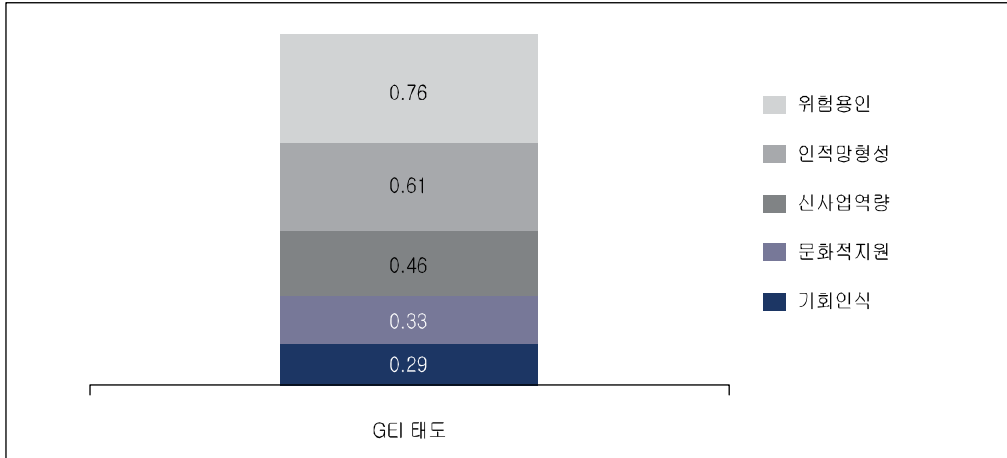
7)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기업가정신이 3년째 담보상태인 것의 원인규명이 주목적이므로 2017 GEI 결과에서 14개 항목 중 전년대비 변화폭이 큰 항목을 제외하고 1점 만점 기준 0.5점 이상의 결과는 따로 설명하지 않음

8)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 Korea et al. (2015)

9) OECD(2013),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3

〈그림 4〉 2017 GEI 한국 결과- '태도' 기둥

(단위: 점)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7 참고하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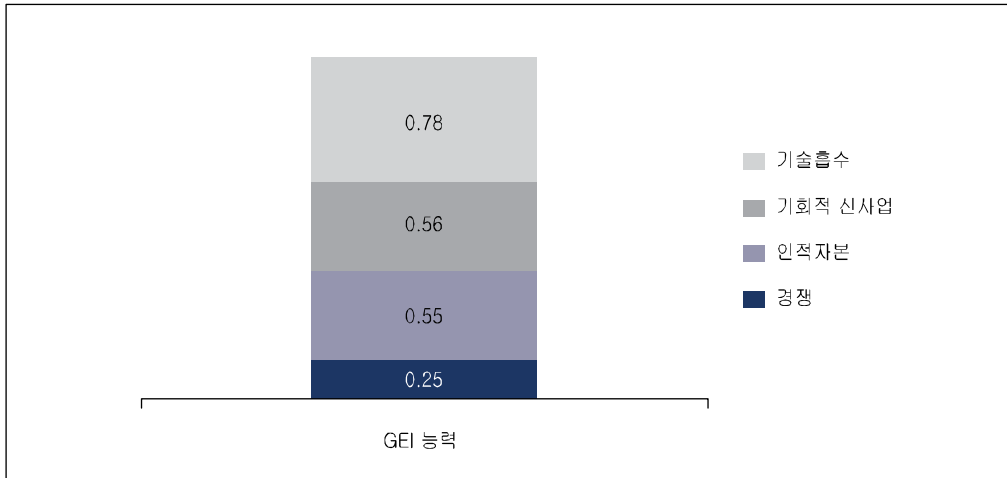
- 기회인식(Opportunity Perception): '16년에 비해 '17년 0.03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14개 항목 중 2 번째로 낮으며, 이는 사회전반의 창업에 대한 기회 인식이 매우 저조(14.39%)¹⁰⁾한 것에 기인하며 제도적으로는 개인재산권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OECD 35개국 중 24위)¹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 문화적 지원(Cultural Support): 기업가에 대한 국민의 시각, 직업으로서 기업가를 선호하는가에 대한 항목이며 국가의 부정부패 수준이 이러한 시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종합적으로 측정. 한국은 전년대비 0.12점 감소하였으며 3번째로 낮은 항목 한국은 성공한 기업가에 대한 위상이 높지 않고(53.52%), 기업가를 선호할만한 직업으로 보는 시각이 매우 낮아(38%) 이에 공공부문의 부패정도도 높아(OECD 34개국 중 27위)¹²⁾ 기업가정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킴
- 신사업 역량(Startup Skills): 전년대비 0.14점 감소했으며 이는 창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적 역량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국민 비율(27.41%)이 매우 낮은데 기인

- 위험용인(Risk Acceptance): 창업 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하는 정도와 T&C 리스크¹³⁾와 정치적 리스크¹⁴⁾를 나타내는 국가위험도¹⁵⁾로 측정하는 항목으로 전년대비 0.18점 증가한 0.7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냄

10)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Adult Population Survey Measures, 2015
 11) The Heritage Foundation, 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 property rights
 12)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CPI), 2013, 부패지수의 점수는 높을수록 좋으나(에-덴마크 91점), 한국의 부패지수는 55점으로 낮은 수준에 속함(OECD 34개국 중 27위)
 13) T&C(Transfer and Convertibility)리스크는 채무자가 소속된 정부가 외화의 송금과 환전을 통제할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게 될 재무적 위험을 말하며, 국가자본통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리스크에 속함
 14) 정치적 위험이란 전쟁, 내란, 폭동 등 정치적 변화로 대외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여 회수불능에 도달할 수 있는 위험
 15) OECD, Country Risk Classification(2016.10.28.)

〈그림 5〉 2017 GEI 한국 결과- '능력' 기둥

(단위: 점)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7 참고하여 정리

한국은 '04년 이후 고소득 국가로 분류되어 OECD 국가 위험도 평가에서 제외되었고, 기회인식이 높은 응답자 중 창업 실패 위험에 대한 감수정도가 38.11%로 낮은 것을 볼 때 위험용인의 점수 상승의 원인이 국가위험도가 안정적인 것을 토대했음으로 미루어 볼 수 있음

② 능력(Ability)

- 능력 항목은 기업가와 영유하는 사업의 특징적 요소를 말하며, '경쟁', '인적자본', '기회적 신사업', '기술흡수'의 세부항목으로 구성

- 경쟁(Competition): 14개의 항목 가운데 전년과 올해 모두 최하위로 나타난 항목으로, 제품 및 시장의 독특성을 고려한 기존기업들의 시장 지배력(140개국 중 97위)¹⁶⁾과 독점금지정책의 효과성(140개국 중 97위)¹⁷⁾으로 측정됨
경쟁항목의 제도적 평가항목인 시장지배력(Market dominance)과 독점금지정책의 효과성(Efficiency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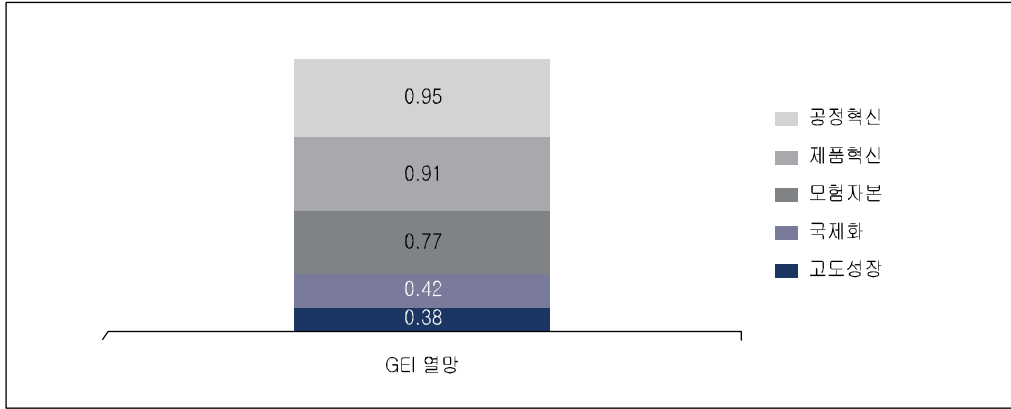
Anti-monopoly policy)은 국제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 Index)의 설문항목을 가져온 것이므로 경쟁항목은 사실상 국민이 기업들에 의한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적 요소로 볼 수 있음

- 인적자본(Human Capital): 국민의 교육 수준¹⁸⁾과 직 원연수 및 노동자유도를 고려하여 측정하며, 한국은 '16년 0.81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17년에는 0.55로 모든 항목 중 0.26의 가장 높은 감소 폭을 나타냄

- 16) 해당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어떻게 특징짓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7척도로 대답하며, 1에 가까울수록 소수의 기업 집단에 의해 지배되고 7에 가까울수록 다수의 많은 기업들이 퍼져있음을 나타냄
- 17)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5~2016
- 18) 고등교육(World Bank)*교육의 질(Global Competitive index)로 측정

〈그림 6〉 2017 GEI 한국 결과- '열망' 기준

(단위: 점)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7 참고하여 정리

한국이 '인적자본'항목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인 것은 규제의 관점에서 노동자유도¹⁹⁾를 평가하는 것이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이며, 한국의 노동자유도는 100점 만점 50.6점의 최하위로 이는 한국이 풀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의 경직성 및 낮은 노동생산성과 직결됨²⁰⁾

③ 열망(Aspiration)

- 열망 항목은 창업/신사업의 질적 측면을 측정하며 '고도성장', '국제화', '모험자본', '제품혁신', '공정혁신'의 세부항목으로 구성

○ 고도성장(High Growth): 전체 항목가운데 두 번째로 감소폭이 높게 나타났으며(0.6→0.38) 4번째로 낮은 항목으로, 향후 5년 안에 50% 이상의 성장을 계획하는 기업의 비율과 사업성숙도,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 가능성으로 측정

5년 안에 높은 성장을 꾀하는 한국 기업의 비율은 낮으며(22.09%), 국가 전반적인 사업성숙도는 보통이고, 혁신적이나 위험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들이 얼마나 자금조달을 받기 용이한지에 대하여 측정함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 가능성은 140개 국 중 86위²¹⁾로 매우 낮음

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벤처캐피탈 투자가 높으며, 늘어나는 창업지원 예산²²⁾과는 상반된 결과이자, 능력 있는 스타벤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높으며 정부의 규제가 걸리는 신사업모형을 가진 도전적인 창업형태보다는 안정적이며 지원금을 받기 쉬운 창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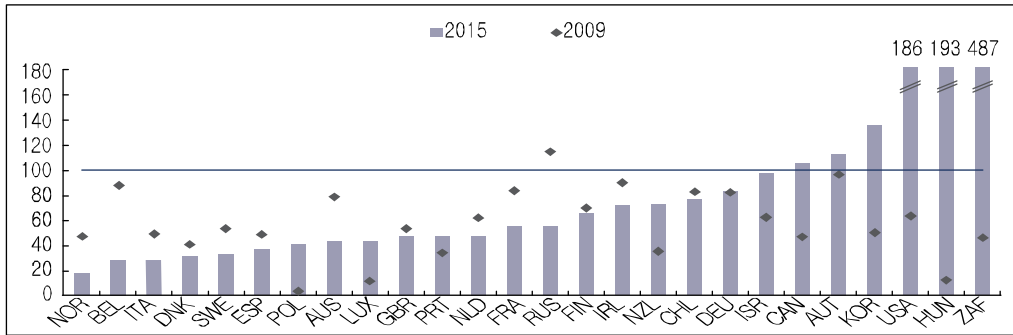
19) The Heritage Foundation, 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 Labor Freedom

20) OECD의 'Skill Mismatch and Public Policy in OECD Countries'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인적자본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숙련 인력과 비숙련 인력과의 미스매치(22%)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며, 각 산업 내 미스매치가 가장 낮은 케이스를 기준으로 미스매치를 줄였을 때 한국 노동생산성은 5%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21)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5-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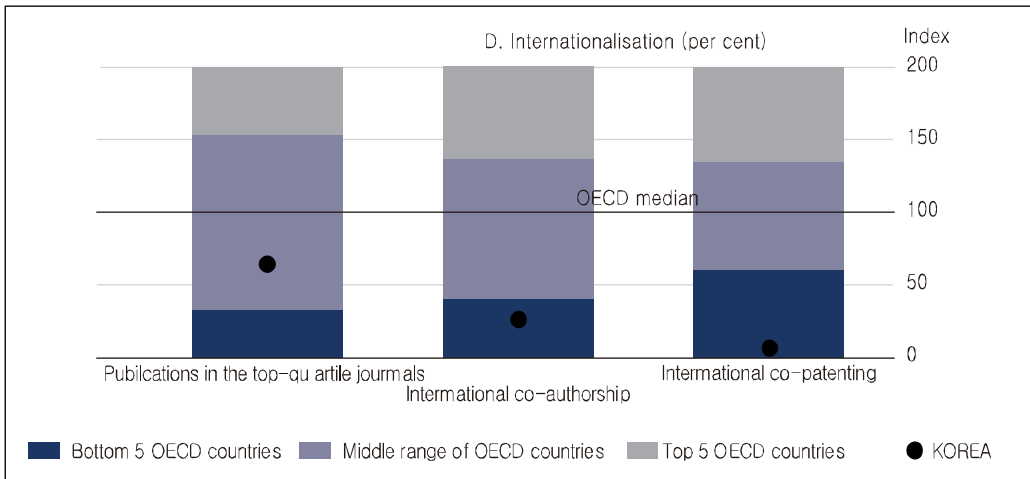
22) 201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예산은 전년대비 12% 증가한 2조 3,752억 원 규모에 달함

〈그림 7〉 OECD 국가 벤처캐피털 투자 추이



자료: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2016

〈그림 8〉 한국의 국제화 정도



자료: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16

○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국가의 기업/기업가들의 국제화 정도를 수출능력, 다양한 지식이 집약되어있는 정도와 국제화에 대한 잠재성을 나타내는 상품의 복잡성(complexity)으로 측정하며, '16년에는 4 번째로 낮았고(0.47), '17년에는 5 번째로 낮게(0.42) 나타남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으며,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R&D)중 0.7%정도만이 해외재원에 불과하는 등 국제적 연계성(International linkage)이 취약한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국제공동논문의 수준 및 공동 특허 역시 OECD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공동특허수가 적은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보유기술을 기업 내부에만 묶어두기 때문

III. Asia-Pacific 4개 국가 기업가정신 분석(인도, 중국, 일본, 대만)

□ 기업가정신 지수가 개선된 국가 중 한국이 속한 지역적 그룹인 Asia-Pacific에서 인도(29계단 상승), 중국(12계단 상승), 일본(5계단 상승)과 한국보다 상위에 랭크된 대만(16위)의 기업가정신을 분석

- 5개 국가 선정이유는 GEDI의 분류²³⁾에 따라 인도와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부상하는 신흥국들(Economic behemoths)로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기반이 잘 잡힌 선진경제권(mature economy)에서는 일본, 대만은 한국보다 GEI가 높으므로 분석 국가로 선정

① 인도(69위)

[배경]

-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의 일명 '모디노믹스'를 통해 '12년부터 4%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다시 회복하여 올해 1분기 GDP 7.9% 성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급성장하고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모디노믹스의 일환으로 인도는 15억 달러 규모의 '스타트업 인디아' 정책을 추진하며 기술특허 보호, 창업 시 규제완화, 지원/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²⁴⁾하고 신생기업에 3년간 소득세·근로감독·자본이득징수 등을 면제하고 무료법률 상담, '창업등록하루완료'²⁵⁾ 등을 진행하며 기업가정신 육성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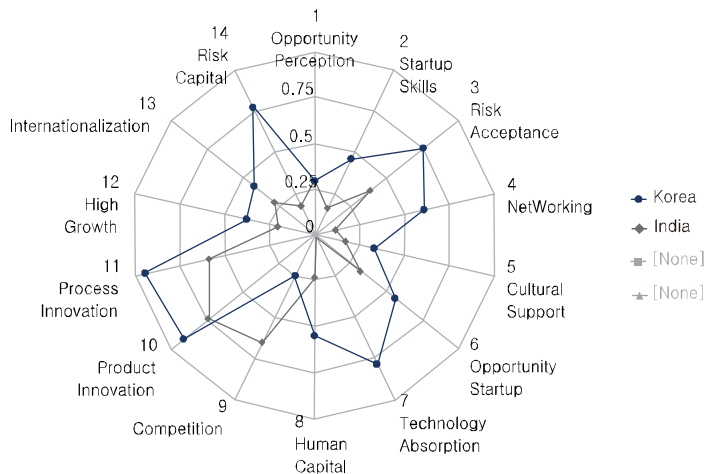
- 현재 인도는 미국과 영국 다음의 세계 3위 창업대국으로 4,2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있으며, 이와 같은 창업열풍은 IT 기업이 포진한 벵갈루루, 뉴델리 주변 수도권(NCR)의 IT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기회창업'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23)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7, p. 50

24) 서울경제신문, "인도 베스트셀러 작가 반살 "결핍이 만든 혁신, 인도 청년들의 창업 원동력", 2016.12.04

25) 조선비즈, "인도 실리콘밸리 '벵갈루루'...모디의 파격지원에 제2도약", 2016.11.02

〈그림 9〉 2017 GEI 한국 vs. 인도 14개 항목 결과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7 참고하여 정리

[GEI]

- 인도는 69위(25.8점)로 전년 대비 29계단 상승하였으나, 점수 상으로는 0.9점 상승했고 '경쟁', '기회인식' 항목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한국보다 낮음
- 그러나 '경쟁' 항목(0.65점)은 한국(0.25점)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기업집단의 시장지배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4.0(140개국 중 41위)으로 한국(3.4점, 97위)보다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회인식' 항목의 경우 0.29점으로 한국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평가내용 중 제도항목(경제자유도+사유재산보호)을 제외하고 GEM의 기회인식(opportunity recognition) 설문조사 항목을 보면 '15년 기준 인도는 37.79%로 한국(14.39%)보다 높음
- 이는 2016 암웨이 글로벌 기업가정신 보고서(AGER, Amway Global Entrepreneurship Report)²⁶⁾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업가정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기업가적 잠재성 항목에서 인도는 각각 74%, 59%로 한국(68%, 48%)보다 기업가정신 및 기업가적 기회인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② 중국(48위)

[배경]

- Forbes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기업가정신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2000년 중국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의 총수입은 약 4조 위안으로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2013년 국영기업의 총수입이 6배 증가하고 민영기업은 18배 성장. 나아가 이윤의 경우 같은 기간 국영기업 7배, 민영기업 23배로 더욱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음을 제시²⁷⁾
- 중국의 기업가정신 활성화정책은 현재진행형으로,

지난해 3월 리커창 총리의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創新) 기치를 필두로 정부 차원에서 창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15년 중국 스타트업 규모는 82조 6,000억 원으로 1년 동안 3배 급증

- 또한, 중국은 최근의 대외 불확실성, 저성장 기조의 연속적 뉴노멀 상황에서 IT를 기반으로 한 '기술기반 창업'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제발전의 병목을 이겨내고자 함²⁸⁾
- 특히 '20년까지 기술혁신을 통한 혁신형 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며 그 내용 중 많은 부분을 창업이 차지함. 이는 경제성장과 정의 관계에 있는 기회추구형 창업, 생산적 기업가정신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임
- 중국의 창업 기업의 약 81%가량이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었고, 핀테크, 전자상거래, 교통서비스, O2O 등 미래성장동력 차원에서 질 높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 이는 세계적인 스타벤처인 알리바바, 샤오미, 텐센트, 바이두와 같은 IT 혁신기업이 성립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한 배경이 됨

[G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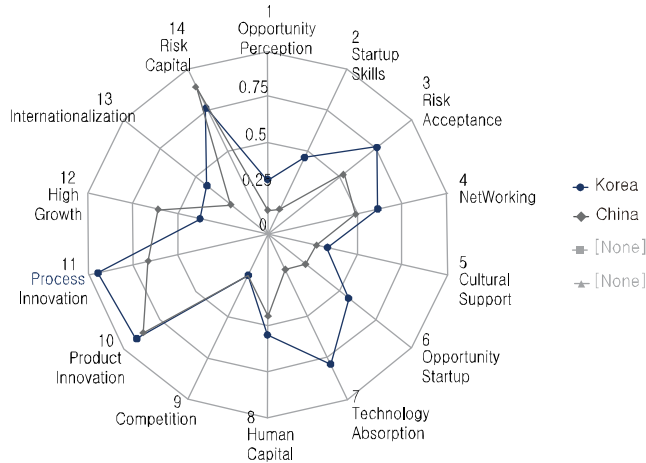
- 중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16년에 비해 12계단(1.1점) 상승하여 137개국 중 48위에 랭킹되었으며, 이는 '모험자본(0.55→0.89)', '고도성장(0.36→0.61)', '위험용인(0.26→0.52)' 항목의 상승에 기인하고 특히, '모험자본', '고도성장' 항목은 한국(각각 0.77, 0.38)보다 높게 나타남

26) AGER은 한 해 동안 45개국 만 18세~99세 이하의 남녀 50,861명을 대상으로 각국의 기업가정신을 조사하며, 한국은 1,500명이 참여

27) Forbes, "The rise of entrepreneurship in China", 2016.04.05

28) 아주경제, "개혁의 가속, 중국 경제에 밝은 미래가 펼쳐지다", 2016.11.25

〈그림 10〉 2017 GEI 한국 vs.중국 14개 항목 결과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7 참고하여 정리

- 모험자본은 기업가적 열망을 달성하는데 있어 기업가 개별 재정자원의 한계를 넘어 큰 사업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비공식적 투자(Informal Investment)²⁹⁾와 자본시장의 성숙도(Depth of capital market)³⁰⁾으로 측정되는데 중국의 비공식적 투자는 0.87, 자본시장 성숙도는 0.95로 매우 높음 (한국은 0.82, 0.80)
- 고도성장 항목은 향후 5년 내 50% 이상의 성장을 계획하는 기업의 비율과 사업전략으로 측정되는데 중국은 각각 0.70, 0.69으로 한국의 0.56, 0.54 보다 높음

③ 일본(25위)

[배경]

- 일본의 기업가정신은 현재 일본이 놓여있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GEI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남
- 일본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세계 18개국 중 가장 비관적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

하는 일본 젊은이들은 40%도 채 되지 않음³¹⁾

- 블룸버그에서도 일본 젊은 층은 아베총리가 원하는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짚었으며,
- OECD에서도 일본의 기업가정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일본 젊은 층의 태도변화가 관건이라고 밝힘
- 이와는 반대로 아베 신조총리는 아베노믹스의 기초 아래 '위대한 기업국가' 실현을 위해 '야성적 충동', 즉 기업가정신을 강조
- GEI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별설문 부분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가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기업가정신을 위한 제도/환경적 부분은 우수하게 갖추어져 있음

29) 18~64세 인구 중 비공식투자를 하는 비중에 타인의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의 평균을 곱한 값으로 측정

30) 주식시장 규모 및 유동성, IPO수준, M&A, 부채 & 신용시장 활동으로 측정

31) 조선비즈,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일본2030'", 2016.11.24

[GEI]

- 일본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15년 한국보다 5계단 낮았고, '16년에는 3계단 낮았으나 '17년에는 한국보다 2계단 높은 25위에 랭킹
- <그림 11>은 한국과 일본의 GEI 14개 항목의 결과를 나타낸 방사형 그래프로 일본이 강점을 보이는 항목은 '인적자본(1.00)', '제품혁신(1.00)', '공정혁신(1.00)', '고도성장(1.00)'이며, 14개 항목 중 5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높음
- '기회인식', '신사업역량', '문화적 지원' 등의 태도 항목은 한국과 일본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나는 항목인데 일본은 태도항목에서 한국(45.12)보다 더욱 낮게 나타남(30.77) 이를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인식은 일본이 더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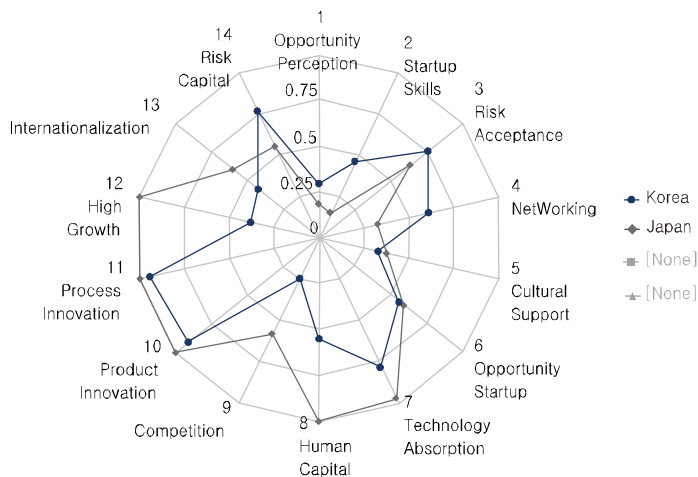
- GEI 총점은 한국 51점, 일본 52점, 개별설문점수는 한국 55점, 일본 53점으로 주목할 만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제도점수에서 한국 77점과 일본 93점으로 큰 차이가 나므로, 양국의 제도적 측면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표 5> 2015~2017 한국과 일본의 기업가정신 지수 변화

국가	2015	2016	2017
한국	28위(54.1점)	27위(53.4점)	27위(50.5점)
일본	33위(49.5점)	30위(50.6점)	25위(51.7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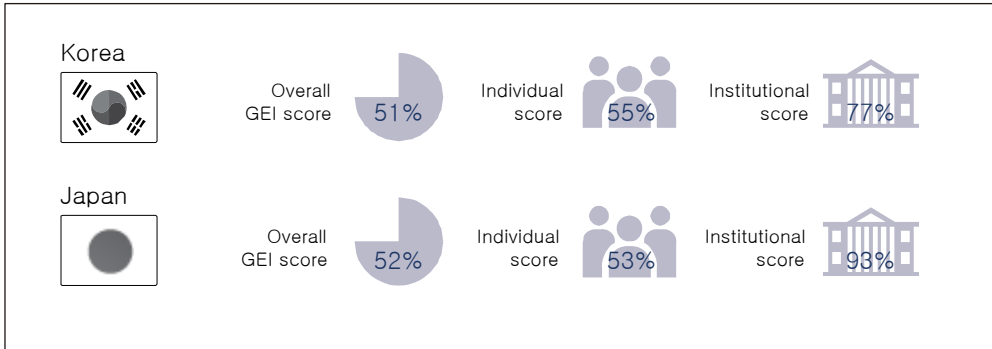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5-2017

<그림 11> 2017 GEI 한국 vs. 일본 14개 항목 결과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7 참고하여 정리

〈그림 12〉 2017 GEI 한국 vs. 일본 점수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7

- 능력기동에서 한국과 일본이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항목은 '경쟁'과 '인적자본' 항목

○ 경쟁항목(한국 0.25, 일본 0.58)의 개별설문변수는 한국 0.36점, 일본 0.32점으로 양국 모두 낮으나 제도변수(시장지배력+반독점 정책의 효과성)³²⁾는 한국 0.48, 일본 1.00으로 차이가 큼

한국은 기존 기업집단에 의한 시장지배정도가 7점 만점 기준 4.0(140개국 중 97위)이나 일본은 5.9로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반독점정책 효과성³³⁾은 한국 4.3(33위), 일본 5.4(3위)로 한국의 상품시장효율성이 일본에 비해 떨어짐

○ 인적자본 항목(한국 0.55, 일본 1.00)의 제도변수는 직원훈련³⁴⁾으로 한국은 4.3(36위), 일본은 5.4(6위)를 나타내며, 일본 기업들의 직원교육 및 발전에 대한 투자가 더 잘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냄

- 열망기동에서 한국과 일본이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항목은 '고도성장' 항목

○ 고도성장(한국 0.38, 일본 1.00)은 개별설문변수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향후 5년 안에 50% 이상의 성장을 계획하는 기업의 비율이 한국은 0.56, 일본은 0.98로 큰 폭의 차이를 보임

제도변수에서 벤처캐피탈의 충분성은 한국 2.6(86위), 일본 3.6(21위)로 나타났으며, 기업전략의 차별성(Business sophistication)은 한국 4.8(26위), 일본 5.8(2위)로 역시 큰 차이를 보임

32)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5~2016, p. 68, 377

33) 정부의 반독점 정책이 공정한 경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7점 척도로 대답하며, 1에 가까울수록 효과적이지 않음

34)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 Report 2015~2016, p.377

④ 대만

[배경]

-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보다 약간 낮은 1%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산업구조도 한국과 비슷한 반도체, 전자제품 등 수출위주의 제조업에 치우쳐 중국의 저성장 기조로 인해 내수도 막막한 실정으로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음
- 실업률도 2년간 3%대를 유지하며, 한국이 현재의 상황을 '헬조선'이라 부르는 바와 같이 대만은 자국을 '귀신의 섬(鬼島)'으로 부름³⁵⁾
-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대만은 창업을 꼽으며 '15년 마오쯔귀 행정원장을 필두로 대만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혁신과 기업가정신 진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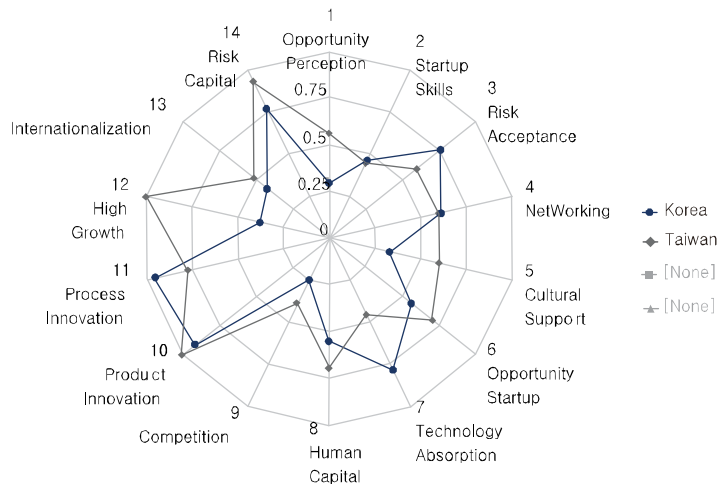
위해 규제완화, 회사법 개정, '헤드스타트 타이완'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 '16년 9월부터는 첨단 IT 스타트업에 '23년까지 지원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등 향후 기회추구형 신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
- GEM의 대만 기업가정신 평가에서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대만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기조와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 지원(기술창업, 창의/문화산업에 대한 창업, 여성창업, 각종 인센티브 등)이 대만 기업가정신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힘³⁶⁾

35) 동아일보, "헬대만 현상 극복하자...D스쿨 세워 창업 인재 육성", 2016.11.17

36)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5

〈그림 13〉 2017 GEI 한국 vs. 대만 14개 항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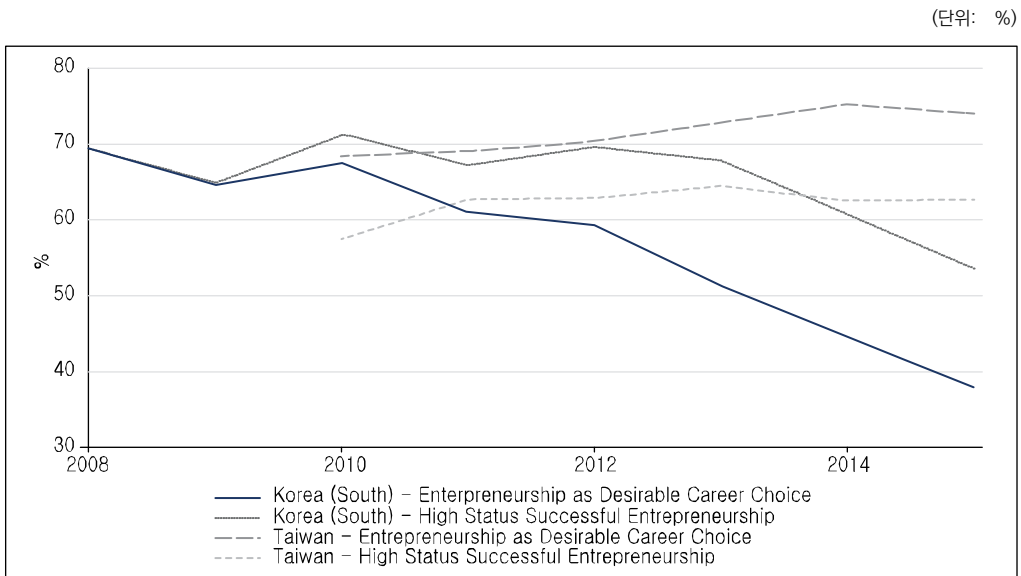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2017 참고하여 정리

[GEI]

- 대만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전년(세계 6위)대비 9점이 감소하며 10계단 하락하였으나, 전체 16위(60.7점)로 여전히 상위권이며,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1위에 랭크됨
- 대만은 3개의 큰 기동 중 열망 항목이 특히 두드러졌으며(전체 4위, 74점), 그 중 '제품혁신(1.00)'과 '고도성장(1.00)'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위험용인', '기술흡수', '공정혁신' 항목은 한국이 대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11개 항목에서 대만이 더 높게 나타남. 한국과 대만의 눈에 띄게 차이가 있는 항목은 '고도성장'과 '문화적 지원', '기회인식' 항목

- 대만의 '고도성장' 항목은 1.00점으로 한국(0.38)보다 0.62점 높으며, 5년 안에 50% 이상의 성장을 계획하는 기업 비율이 한국은 0.56, 대만은 0.98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벤처캐피탈의 충분성은 한국 2.6(86위), 대만 4.1(12위)로 큰 차이를 나타내며, 기업전략의 차별성은 한국 4.8(26위), 대만 5.0(21위)의 차이를 보임
 - '문화적 지원'은 한국 0.33, 대만 0.60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제도적 변수(부패지수)는 한국 0.63, 대만 0.69로 비슷하지만 개별설문변수인 기업가의 위상과 직업으로서의 선호도는 한국 0.32, 대만 0.62로 차이를 보임
- <그림 14>는 양국의 기업가를 직업으로써 선호하는가와, 성공한 기업가에 대한 위상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대만이 한국보다 기업가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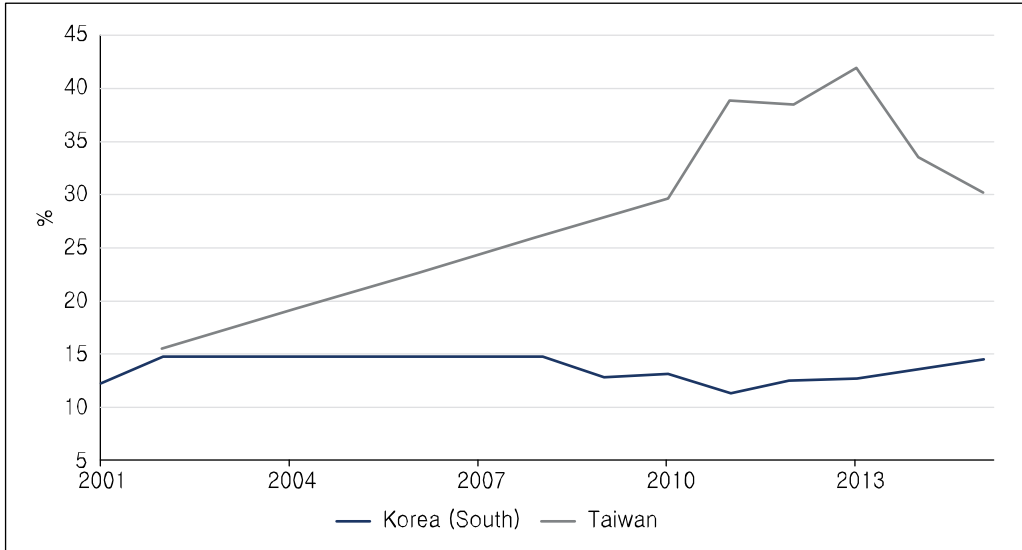
<그림 14> 한국, 대만의 기업가에 대한 인식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그림 15〉 한국, 대만의 기회인식

(단위: %)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기회인식’은 한국 0.29, 대만 0.56이며, 이 중 제도적 변수(경제자유도+개인재산권보호)는 한국 0.84, 대만 0.82로 한국이 더 높으나, 개별설문변수인 기회인식(opportunity recognition) 자체는 한국 0.23, 대만 0.50의 차이를 보임(그림 15) 참고)

IV. 결론 및 시사점

1. GEI를 통해 본 한국 기업가정신 생태계

□ 한국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17년 새롭게 구성된 제도 항목의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부분에도 문제가 많음

[태도적 측면]

- GEI 분석결과, 한국은 기업가정신을 이루는 3개의 큰 기둥 가운데 태도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OECD 34개국 가운데에서도 24위로 하위권에 속함
- GEDI에서는 기업가정신을 이루는 태도, 능력, 열망의 3 기둥이 균등한 수준으로 발달되어야 건강한 기업가정신 생태계라고 하였으나, 한국은 열망이 가장 높고 능력과 태도가 그에 비해 낮아 불균등한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가지고 있음
-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는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위상, 국민적 인식 및 문화적 지원 등을 말하며 한국은 사회적으로 반기업정서가 강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가 낮은 주요 요인이 됨
- 따라서 창업을 기회로 보는 인식,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이 시급하며 사업 계획 시 실질적인 사업역량을 갖추었다고 느끼는 온도차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수하는 정도 등의 사회 전반적 태도 개선이 필요
- 기업가정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반기업정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고 실패와 위험을 회피하는 사회 전반의 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 공헌, 정치부문의 청결,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의 다각도적 노력이 필요

-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의 경우 미국은 1982년부터 정부 주도로 초등학교부터 기업가정신을 정규교육으로 가르치고 있으며,³⁷⁾ EU 역시 중등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을 채택³⁸⁾하고 있어 조기부터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노력이 활발
- 한국은 2018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을 교육, 2020년까지 초·중·고 정규과목으로 도입할 계획에 있음³⁹⁾에 따라 앞선 미국과 유럽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도전과 모험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조기교육을 잘 정착시키고, 사회 전반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

[제도적 측면]

- 아울러, 한국은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취약하여 건강한 기업가정신 생태계 구현에 더욱 큰 장벽이 되고 있음
- GEI 분석결과, 기업가정신을 이루는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부패, 다양한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 노동자유도, 벤처캐피탈의 충분성, 무역장벽 등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태도 기둥: 한국은 개인재산권 보호가 상당히 미흡(OECD 35개국 중 24위)하고, 공공부문의 부패정도도 높아(OECD 35개국 중 27위) 기업가정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킴
 - 능력 기둥: 인적자본을 구성하는 제도항목인 '노동자유도'는 한국이 매년 OECD의 지적을 받고 있듯 매우 취약한 부분(100점 만점 50.6점으로 최하위)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낮은 노동생산성의 해결 역시 기업가정신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

37) 한국경제신문, "기업가 정신 교육이 필요하다", 2016.10.23

38) 아시아경제, "美·中,은 판기우는데...한국 기업가정신은 뒷걸음질", 2017.01.04

39) 중앙일보, "기업가정신 왜 중요한가요", 2016.11.22

○ 열망 기동: 한국은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아 기업가정신의 국제화와 세계 경쟁력을 저하시킴

-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6년 128개국 중 11위로 상위권에 랭킹되었으나, 혁신을 활용한 창조적 상품과 서비스는 50위, 이를 뒷받침하는 규제환경은 66위로 하위권임

- 이는 한국의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위해서는 현재 창업에 쏠려있는 정책이 혁신적 결과의 창출과 기회추구형 창업을 늘리는데에는 큰 효과가 없으며 다양한 방면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

○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이 벤처캐피탈 자금을 늘리고는 있으나 실제로 자금의 68.9%는 3년 이상된 소기업에게 26.7%는 7년 이상의 소기업에게 주어지고 있어 정작 3년 이하의 창업기업들이 1/3의 투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소기업들이 소기업인 상태로 지속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밝힘

○ 실제로 '11~'14년 0.01%의 소기업만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소위 일컫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반증

- 따라서, 단기적 성과창출을 위한 창업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

2. Asia-Pacific 4개 국가와의 기업가정신 비교 시사점

□ 한국과 지역적으로 근접한 Asia-Pacific 경쟁국 4개 국가의 기업가정신지수 분석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으며 <표 6>를 통해 비교요약을 정리함

- 인도와 중국은 적극적인 창업 정책의 설립과 추진

을 통해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 인도 29계단, 중국 12계단의 비약적 상승이 있었음

○ 인도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 인식적 측면에서 한국보다 긍정적이며 시장과 제품의 다양성도 한국보다 높게 나타남

○ 중국은 창업을 위한 모험자본이 매우 높고(0.89, 한국 0.77), 향후 5년 내 50% 이상의 성장을 계획하는 비율도 한국보다 1.6배 높음. 이처럼 중국은 기업가정신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열망'적 토대를 갖추기 위해 노력

- 일본은 GEI의 제도항목의 다수를 GCI에서 차용함에 따라 GCI가 작년대비 8계단(33위→25위) 상승함 같이, GEI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기업가정신을 뒷받침 하는 제도적 환경이 잘 갖추어짐. 그러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는 한국보다 좋지 않음

- 대만은 상위 16위, 아시아 1위로 기업가정신 순위가 높으며, 제도적 부분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태도적 측면에서 한국보다 높음

- 정체하고 있는 한국 기업가정신의 상황과는 달리 신흥국들에서는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통해 경제병목을 해결하고자 하며, 일본과 같은 선진경제의 경우 기업가정신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잘되어 있고, 대만은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매우 좋음

○ 한국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국제비교를 통해 재확인

〈표 6〉 Asia-Pacific 5개 국가 기업가정신 지수 분석 요약

국가	2017 GEI	강점	약점	특징	한국과의 비교분석
인도	69위	- 제품혁신 - 경쟁 - 공정혁신	- 기술흡수 - 인적망형성 - 신사업역량	- 작년 대비 29계단 상승 - 모디노믹스를 배경으로 신흥국 중 가장 눈에 띄는 고성장세 기록,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추진으로 세계 3위 창업 대국에 등극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 인식적 측면에서 한국보다 긍정적이며, 강점인 IT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기회추구형 창업이 활발
중국	48위	- 모험자본 - 제품혁신 - 공정혁신	- 기회인식 - 신사업역량 - 기술흡수	- 작년 대비 12계단 상승 - 세계적 스타벤처의 탄생이 늘고 있으며, 신성장 산업에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모험자본과 고도성장 항목이 한국보다 높으며, 한국이 취약한 서비스분야의 창업(81%)에서 강점을 보임
일본	25위	- 인적자본 - 제품혁신 - 공정혁신 - 고도성장	- 신사업역량 - 기회인식 - 인적망형성	- 작년 대비 5계단 상승 -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 AI, IoT 4차산업 분야 규제개혁 및 제도적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음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는 한국보다 좋지 않으며, GCI평가 순위가 급등(33→25)함에 따라 기업가정신 생태계의 제도적 측면도 상승
대만	16위	- 제품혁신 - 고도성장 - 공정혁신	- 경쟁 - 기술흡수 - 신사업역량	- 상위 16위, 아시아 1위 - 한국과 비슷한 경제상황에 있으며, IT를 중심으로한 창업지원에 집중, 제도변수의 추가로 작년 6위에서 올해 16위로 순위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상위권이고 아시아에서는 1위를 차지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가 5개국 중 가장 우수하며, 기업가에 대한 인식, 기회인식 측면에서 한국보다 높음
한국	27위	- 공정혁신 - 제품혁신 - 기술흡수	- 경쟁 - 기회인식 - 문화적지원	- 작년과 동일한 27위, 점수는 하락 - 창조경제 기조아래 기업가정신 활성화에 각종 지원이 늘어났으나 GEI를 통해 본 기업가정신은 오히려 퇴보 - 반기업정서를 비롯한 기업가정신에 대한 태도, 기업가정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부문이 미흡이 주 원인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7년 2월 20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45층 | 전화 3771-0060 | 팩스 785-0270-3